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다니엘 6:1-9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험한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원칙으로 살아야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다니엘을 통해 그 원리들을 찾고자 합니다.

1. 정체성을 알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마 5:13-16). 우리의 짠 맛과 밝음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자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부패를 막는 짠 맛이 되고,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왕이 도장을 찍습니다. 가장 큰 나라의 왕이 무슨 기준으로 도장을 찍을까요?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도장을 찍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인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2. 어려움을 알라

세상은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것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첫째는, 이상한 사람들이 괴롭히는 것입니다(단 6:4-5).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를 혼드는 자들, 곳곳에서 미워하고 괴롭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 다니엘은 주님을 위해서 미움 받을 용기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괴롭힙니다. 세상은 말씀을 교묘히 사용하여 괴롭힙니다(단 6:5). 어설픈게 말씀을 가지고 나오면 찢찢 매고, 그들이 맞는 것 같다고 느끼고 우왕좌왕하다가 덮에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든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천 독 읽기에 동참하시고, 철저히 읽어 열매 맺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셋째는, 이상한 규칙들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상한 규칙들을 가지고 나를 박해할 수 있습니다(단 6:7-9). 일반적인 법은 잘 지켜야 하지만, 엉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문처럼 일시적인 30일간의 규칙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30일이면 끝날 것에 목숨을 연장하자고 기도하기를 멈추며 살지 않았습니다. 영원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위배가 된다면, 죽더라도, 사자 굴에 들어가도 아니라고 하여야 합니다.

3.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로, 나로 말미암아 나의 일터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단 6:2).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존재하는 곳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니다.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를 손해 보고 눈물 나게 하여서도 안 됩니다. 다니엘은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옆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손해를 끼치는 삶이 아니라 이익을 보게 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살후 3:11).

둘째로,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단 6:4).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야 할 한 가지 수칙어는 충성입니다. 세상에서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많은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제거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을 찾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도 충성해야 합니다. 모든 기관장과 각 기관의 재정을 맡은 자들은 충성해야 합니다. 숨겨진 것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날에 주님은 다 찾아 낼 것입니다. 충성하십시오.

셋째로, 내면을 건강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단 6:3a). 그는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또한, 당시 어떤 총명한 사람들보다도 세상을 보고 국사를 판단하는 것이 빨랐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Laborare est orare, orare est laborare.” 이 말뜻은 일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라는 라틴어 격언인데, 매우 성경적인 말입니다(골3:17). 다니엘에게는 일하는 것이 기도였고, 기도가 일이었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 세대는 기도하였고 기도할 때에 혜안이 열렸습니다. 우리세대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다음 세대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첫사랑과 옛날의 정신 첫사랑을 회복하고 호흡이 다할 때까지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사,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본인도 기도 안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선교 보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퀸즈장로교회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기도로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인 것을 잊지 맙시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익이 되는 삶이 됩시다. 충성을 합시다. 기도함으로 내면을 건강하게 가꾸시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 나눔의 시간 ○

1.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2.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에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3.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4.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